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14 년 3 월 5 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4 장

담당: 홍보실 오가혜 연구원

전화: 02-3701-7377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mailto:communications@asaninst.org)

## 아산정책연구, 한국인 국제관계 인식 여론조사 실시 일본·아베 호감도 최하, 남북이산가족상봉 영향 북한 호감도 상승

-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http://www.asaninst.org)) 여론·계량분석센터는 3 월 1 일부터 3 일까지 3 일간 국가 및 국가수장 호감도와 국가관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2014 년 3 월 국가 호감도(10 점 만점)는 미국 5.79 점, 중국 4.82 점, 북한 2.71 점, 일본 2.27 점 순이었다. 2013 년 1 월에 국가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일본 호감도가 조사 대상국 중 최하로 내려간 것은 올해 2 월과 3 월이 유이다.
- 북한 호감도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1 월 2.14 점에서 2 월 2.56 점으로, 이번 3 월에는 2.71 점으로 두 달 동안 0.57 점 상승했다. 이는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이 북한 호감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한미관계를 협력적으로 본 한국인의 비율이 80%대를 회복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이 성사되며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아베 총리 호감도는 조사대상 국가수장 중 최하로 떨어졌다(10 점 만점에 1.11 점). 북한 김정은 위원장(1.27 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호감도는 지난 1 월에 비해 0.67 점 하락한 3.47 점으로 나타났다. 소치 올림픽에서 있었던 여러 잡음이 푸틴 대통령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014 년 3 월 한국인의 국제관계 인식 조사는 2014 년 3 월 1 일부터 3 일까지 3 일간,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 걸기(RDD)방식으로 전국 19 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에게 실시됐고,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3.1\%$ 이다. 연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인의 국제관계 인식에 대한 아산데일리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매월 정기적으로 주변국 호감도 및 주변국간 국가관계, 국가수장 호감도 아산데일리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년 3월 한국인의 국제관계 인식 조사는 2014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 걸기(Random Digit Dialing, RDD)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됐고,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3.1\%$ 이다.

### 주요결과

- ✓ **국가호감도: 북한 호감도 상승 추세, 일본 호감도는 최하**
  - 0점 '전혀 호감이 없다'에서 10점 '매우 호감이 있다' 11점 척도로 미국, 중국, 일본, 북한 4개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를 조사했다. 2014년 3월 국가 호감도는 미국 5.79점, 중국 4.82점, 북한 2.71점, 일본 2.27점 순이었다. <표 1 참조>
  - 북한 호감도는 2014년 1월 2.14점에서 2월 2.56점, 이번 3월에는 2.71점으로 두 달 동안 0.57점 상승했다. 북한 호감도 상승은 고령층의 북한 호감도 상승으로 가능했다. 2014년 1월 50대와 60세 이상의 북한 호감도는 각각 1.88점, 0.92점에 불과했지만, 3월에는 50대 2.77점, 60세 이상 2.02점으로 두 세대 모두 호감도가 1점 가량 상승했다. 이러한 고령층의 북한 호감도 회복은 2월의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참조>
  - 반면 한국인의 일본호감도는 여전히 2점대 초반에 머무르며,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호감도는 지난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유지됐다.

표 1. 국가 호감도<sup>1</sup>

| 구분 | 2013 년 |      |      |      |      |      |      |      |      |      | 2014 년 |      |      |
|----|--------|------|------|------|------|------|------|------|------|------|--------|------|------|
|    | 1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 미국 | 5.70   | 5.81 | 5.74 | 5.60 | 5.61 | 5.69 | 5.86 | 5.67 | 5.68 | 5.40 | 5.54   | 5.72 | 5.79 |
| 중국 | 4.45   | 4.38 | 4.22 | 4.33 | 4.92 | 4.77 | 4.66 | 4.62 | 4.47 | 4.37 | 4.59   | 4.83 | 4.82 |
| 일본 | 3.31   | 3.19 | 2.93 | 2.62 | 2.96 | 2.64 | 2.66 | 2.46 | 2.52 | 2.57 | 2.38   | 2.17 | 2.27 |
| 북한 | 2.99   | 2.03 | 2.07 | 2.26 | 2.27 | 2.38 | 2.43 | 2.46 | 2.28 | 2.37 | 2.14   | 2.56 | 2.71 |

표 2. 연령대별 북한 호감도

| 북한      | 2013 년 |      |      |      |      |      |      |      |      |      | 2014 년 |      |      |
|---------|--------|------|------|------|------|------|------|------|------|------|--------|------|------|
|         | 1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 20 대    | 2.52   | 2.02 | 2.14 | 2.25 | 2.09 | 2.47 | 2.57 | 2.62 | 2.29 | 2.59 | 2.18   | 2.57 | 2.55 |
| 30 대    | 3.58   | 2.40 | 2.30 | 2.44 | 2.64 | 2.65 | 2.79 | 2.82 | 2.68 | 3.02 | 2.66   | 2.96 | 2.84 |
| 40 대    | 3.81   | 2.91 | 2.84 | 2.75 | 2.92 | 2.91 | 3.08 | 2.98 | 3.12 | 2.82 | 2.81   | 3.33 | 3.27 |
| 50 대    | 3.20   | 1.80 | 1.80 | 2.47 | 2.18 | 2.33 | 2.27 | 2.26 | 1.86 | 2.26 | 1.88   | 2.3  | 2.77 |
| 60 세 이상 | 1.55   | 0.78 | 1.12 | 1.28 | 1.31 | 1.34 | 1.23 | 1.41 | 1.21 | 1.08 | 0.92   | 1.42 | 2.02 |

<sup>1</sup> 아산데일리폴 (조사기간 2013 년: 1/3~5, 3/30~4/1, 5/2~4, 6/1~3, 7/1~3, 8/3~5, 9/2~4, 10/3~5, 11/2~4, 12/2~4, 2014 년: 1/1~3, 2/1~3, 3/1~3)

- ✓ **국가관계: 한미 '협력상대이다' 80% 회복, 한국인이 본 미중관계는 '경쟁적',**
-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미중관계가 협력적인지 경쟁적인지에 대해 조사했다. 2014년 3월 한미관계를 협력적으로 본 한국인의 비율은 82.2%, 한중관계를 협력적으로 본 비율은 59.1%였다. 한일관계와 미중관계는 경쟁적인 것으로 본 비율이 높았다. 한일관계를 경쟁적이라고 본 비율은 74.1%, 미중관계를 경쟁적이라고 본 비율은 66.7%였다. <표 3 참조>
  - 지난해 11월 이후 80% 이하에 머물렀던 한미관계를 협력적으로 본 한국인의 비율이 5개월 만에 80%대를 회복했다. 4월의 오바마 대통령 방한 계획이 확정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인이 본 미중관계는 경쟁상대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60.3%로 소폭 하락했던 이 비율은, 3월에 다시 66.7%로 상승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갈등을 지속해 나갈 경우 미중관계를 경쟁적으로 보는 경향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가관계 평가<sup>2</sup>

| 한미관계   | 2013 년 |      |      |      |      |      |      |      |      |      | 2014 년 |      |      |
|--------|--------|------|------|------|------|------|------|------|------|------|--------|------|------|
|        | 1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 경쟁상대   | 11.1   | 9.1  | 11.0 | 10.9 | 11.2 | 11.7 | 10.3 | 10.6 | 11.3 | 14.9 | 12.6   | 11.1 | 11.8 |
| 협력상대   | 80.2   | 84.3 | 81.0 | 81.2 | 81.9 | 80.8 | 82.7 | 80.6 | 79.0 | 74.4 | 78.9   | 79.3 | 82.2 |
| 모름/무응답 | 8.7    | 6.6  | 8.1  | 7.8  | 6.9  | 7.6  | 6.9  | 8.7  | 9.7  | 10.7 | 6.4    | 9.6  | 6.0  |

| 한중관계   | 2013 년 |      |      |      |      |      |      |      |      |      | 2014 년 |      |      |
|--------|--------|------|------|------|------|------|------|------|------|------|--------|------|------|
|        | 1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 경쟁상대   | 40.9   | 41.3 | 42.9 | 38.0 | 28.7 | 35.3 | 36.3 | 33.0 | 33.4 | 39.2 | 33.4   | 30.5 | 31.9 |
| 협력상대   | 49.8   | 51.3 | 47.5 | 52.5 | 62.5 | 56.5 | 55.4 | 55.8 | 54.6 | 51.1 | 55.8   | 57.6 | 59.1 |
| 모름/무응답 | 9.3    | 7.4  | 9.6  | 9.4  | 8.8  | 8.3  | 8.2  | 11.2 | 11.9 | 9.7  | 8.4    | 11.9 | 9.0  |

| 한일관계   | 2013 년 |      |      |      |      |      |      |      |      |      | 2014 년 |      |      |
|--------|--------|------|------|------|------|------|------|------|------|------|--------|------|------|
|        | 1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 경쟁상대   | 63.6   | 68.9 | 68.6 | 67.4 | 65.2 | 71.3 | 69.2 | 68.4 | 72.6 | 66.2 | 74.8   | 73.5 | 74.1 |
| 협력상대   | 27.2   | 23.9 | 22.9 | 24.1 | 26.7 | 20.9 | 23.1 | 20.1 | 18.6 | 22.2 | 17.4   | 15.5 | 18.9 |
| 모름/무응답 | 9.2    | 7.2  | 8.5  | 8.6  | 8.1  | 7.8  | 7.7  | 11.5 | 8.8  | 11.6 | 5.8    | 11.0 | 7.0  |

| 미중관계   | 2013 년 |      |      |      |      |      |      |      |      |      | 2014 년 |      |      |
|--------|--------|------|------|------|------|------|------|------|------|------|--------|------|------|
|        | 1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 경쟁상대   | 68.7   | 65.2 | 49.8 | 64.5 | 59.6 | 56.5 | 61.3 | 63.7 | 61.8 | 68.6 | 69.9   | 60.3 | 66.7 |
| 협력상대   | 21.5   | 25.4 | 40.0 | 26.6 | 31.9 | 31.7 | 28.7 | 23.6 | 25.1 | 19.3 | 18.9   | 23.8 | 22.7 |
| 모름/무응답 | 9.9    | 9.4  | 10.2 | 8.9  | 8.5  | 11.8 | 10.0 | 12.7 | 13.0 | 12.1 | 9.4    | 15.9 | 10.6 |

<sup>2</sup> 아산데일리폴 (조사기간 2013 년: 1/3~5, 3/30~4/1, 4/29~5/1, 6/1~3, 7/1~3, 8/3~5, 9/2~4, 10/3~5, 11/2~4, 12/2~4, 2014 년: 1/1~3, 2/1~3, 3/1~3)

✓ **국가수장 호감도: 아베 호감도 최하, 푸틴 호감도 급락**

- 0점 '전혀 호감이 없다'에서 10점 '매우 호감이 있다' 11점 척도로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국가수장 호감도를 측정했다. 2014년 3월 국가수장 호감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6.19점, 중국 시진핑 주석 4.78점, 러시아 푸틴 대통령 3.47점, 북한 김정은 위원장 1.27점, 일본 아베 총리 1.11점 순이었다.

<표 4 참조>

- 아베 총리 호감도는 조사 중 처음으로 최하위로 떨어졌다. 그 동안 한국인에게 가장 호감도가 낮았던 국가수장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었다.

- 한편, 2달 사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하락했다. 올 1월 4.14점이었던 푸틴 호감도는 올 3월 3.47점으로 0.67점 하락했다. 소치 올림픽을 치르며 일었던 여러 잡음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4. 국가수장 호감도<sup>3</sup>**

| 구분         | 2013 년  |          | 2014 년 |       |
|------------|---------|----------|--------|-------|
|            | 7/10~12 | 11/17~19 | 1/1~3  | 3/1~3 |
| 미국 오바마 대통령 | 6.29    | 6.25     | 6.21   | 6.19  |
| 중국 시진핑 주석  | 5.35    | 5.31     | 4.55   | 4.78  |
| 러시아 푸틴 대통령 | 4.08    | 4.87     | 4.14   | 3.47  |
| 일본 아베 총리   | 1.65    | 1.43     | 0.99   | 1.11  |
| 북한 김정은 위원장 | 1.14    | 1.19     | 0.99   | 1.27  |

## 조사개요

### 아산데일리폴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표집방법:** 지역, 성, 연령별 할당추출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1.5% 포인트

**조사기간:** 하단 각주 참조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 조사관련 문의: 김지윤 연구위원(02) 3701-7354, [jiyoon@asaninst.org](mailto:jiyoon@asaninst.org)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mailto: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mailto:eclee@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http://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 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 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 《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3 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 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sup>3</sup> 아산데일리폴 (조사기간 2013 년: 7/10~12, 2014 년: 1/1~3, 3/1~3)